

전국학생행진 5.18 광주 민주화 항쟁 기념 팸플릿

민주주의 이해하기

목차

1. 5.18 민주화 운동의 역사

5.18 민주화 운동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을까? YH 무역 사건과는 어떤 연관이 있을까? 이후에는 어떤 영향을 줬을까?

2. 우리가 5.18 민주화 정신을 계승하는 방법

국가가 인정하는 투쟁과 그렇지 않는 투쟁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민주화는 정말 이룩된 과제일까?

3. 1980년 5월 광주는 정말로 2021년 미얀마라고 부를 수 있을까?

1980년 광주와 2021년 미얀마는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을까? 우리는 어떻게 연대할 수 있을까?

글 1 : 5.18 민주화 항쟁의 역사

최근 5.18 광주항쟁 진압에 참여한 군인들의 증언이 화제다. 당시 진압에 참여했던 퇴역 군인들은 방송이나 언론에 나와 시민들을 공용 화기로 조준 사격했었다고 증언했다. 사람들은 이에 분노하며 누가 시민들을 향해 조준 사격하게 시켰는지, 범인 찾기에 관심 가지고 있다. 5.18 광주항쟁 당시 누가 잘못했는지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광주 정신’을 돌아보는 것 또한 중요하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광주 정신은 무엇일까?

1980년대 출발점에는 광주 민주화 항쟁이 있다. 1980년대 사람들은 ‘광주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뜨겁게 싸웠고 광주 민주화 항쟁은 한국 민주주의 역사의 상징이 되었다. 지금은 잊혀가는, 그러나 누군가는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지키려 했던 광주 정신은 무엇일까?

광주 민주화 항쟁은 1980년 5월 18일 비상계엄 전국 확대조치에 항의하는 전남대 학생들의 시위로 시작되었다. 전두환은 공수부대를 투입해 시위를 폭력적으로 진압하였다. 5월 19일부터는 시민들도 함께 거리로 나와 학생들과 함께 시위를 벌였다. 계엄군은 이를 진압하기 위해 가혹한 폭력을 행사했다. 5월 21일에는 시위대를 향한 무차별 발포가 개시되었다. 이에 맞서 시민들은 무기를 구해 스스로 무장했다. 5월 27일 많은 사망자와 부상자나 발생하고, 도청이 계엄군에 의해 강제 진압당했다.

신군부는 왜 이렇게까지 폭력적으로 시위대를 진압했을까? 만약 전남대 학생들, 시민들과 적당히 타협할 수 있었다면 굳이 폭력 진압을 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또 광주에서의 저항이 광주 시민들의 이익

만을 요구하는 사소한 문제였고, 전국으로 퍼질 여지가 없었다면, 굳이 광주를 봉쇄하고 재진입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광주 민주화 항쟁은 광주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전두환이 두려워했던 광주 시민들의 요구는 무엇이었을까?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1960년대~70년대 한국 사회의 상황을 살펴보아야 한다.

한국은 어떻게 경제성장을 이루었나?

1960년대 한국 경제는 빠르게 성장한다.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상품을 만들 공장을 지어야 했다. 하지만 정부도 기업도 돈이 없었다. 따라서 국가가 보증을 서 외국에서 빌려온 돈, ‘차관’에 의존하게 되었다. 경제성장을 주도한 것은 정부의 지원을 받은 수출 기업이다. 기업들이 성장하면 그만큼 경쟁도 치열해진다. 다른 기업을 이기기 위해서는 기술혁신이나 경영 효율화를 통해 더 높은 생산성을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이 시기 수출기업의 외형적 규모는 빠르게 성장했으나 생산성은 개선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수출이 늘어날수록 오히려 기업들은 손해를 보았다.

그러나 기업들은 수출 규모를 공격적으로 늘려갔다. 점차 저금리에 부채를 확보하기 위한 경영 방식이 일반화되었다. 수익성은 형편없었지만, 정부는 이를 개선하려는 조치가 아니라 기업이 망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제공했다. 기업은 이를 믿고 부채 확보 중심의 경영전략을 지속했다.

박정희 정부의 경제 정책은 1960년대 말 미국의 대외 정책이 변화하면서 위기를 맞이한다. 1969년대 당선된 닉슨 대통령은 베트남 전쟁에서 악화된 무역적자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게 된다. 이전과 달리 보호관세가 한국에도 적용되면서 면직물을 중심으로

로 한 수출기업들이 타격을 받았다. 경제 위기가 찾아왔고, 이에 함께 억눌려 있던 민중들의 불만도 터져 나왔다. 한국 기업들은 몸짓만 커졌을 뿐 실속이 없었고, 자랑할 만한 것은 싼 가격뿐이었다. 저렴한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동자들을 저임금으로, 농민들을 저곡가로 수탈했다. 이는 경제가 성장했음에도 노동자와 농민들은 최소한의 권리도 누릴 수 없는 상황이었다.

YH 무역 사건과 부마항쟁

1970년대 한층 심화한 한국경제의 위기는 1979년 2차 석유파동으로 폭발한다. 수출이 둔화하고 경제성장률은 폭락한다. 이로 인해 사회 곳곳에서 파열음이 터져 나왔다. 대표적인 것이 YH 무역 사건과 부마항쟁이다. 1970년대 한국 최대의 가발수출업체로 부상하던 YH 무역은 1970년대 중반부터 수출둔화와 업주의 방만한 자금유용, 무리한 기업 확장 등으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었다. 1979년 8월, YH 무역은 폐업을 통해 위기를 무마하려 한다.

다른 수출기업들도 마찬가지였다. YH 무역 폐업은 한 회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당시 수출중심의 부실기업 전반의 문제를 보여준다. YH 무역 노동조합원들은 회사 정상화와 노동자의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며 신민당 당사에서 농성을 벌이고 사회적 주목을 받는다. 그러나 정부는 노동조합을 폭력적으로 진압한다. 부산과 마산에서는 유신체제에 대항하는 시위가 이어진다. 이 지역은 경제 위기에 의한 피해가 컸기 때문에 부산과 경남권 대학생들에 의해 시작된 시위가 부경 지역으로 쉽게 확대될 수 있었다.

YH 무역 사건과 부마항쟁은 정권의 경제 정책 실패가 어떤 식으로 노동자 민중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놓았는가를 대표적으로 보여준

다. 국가가 주도하여 기업들에 돈을 주며 수출을 하라고 지원했기에, 이에 충실히 복무한 기업들은 마음 놓고 설비를 투자하고 공장을 지었다. 이미 나라에서 주는 혜택으로 자신들의 몫을 단단히 챙길 수 있었기 때문에 수익성을 고려할 필요가 없었다. 이것이 독화살로 돌아왔을 때 그 위기는 실질적으로 수출경제를 지탱하고 있던 최하층의 노동자들에게 전가되었다.

80년 짧았던 서울의 봄

1980년 봄, 기나긴 유신체제가 막을 내리고 독재자가 사라졌다. 사람들은 이제 민주주의가 실현될 것이라는 희망으로 부풀었다. 구속되었던 양심수들이 풀려났고, 정치 제한도 사라졌다. 유신 정권 아래 쫓겨났던 교수와 학생들도 돌아왔다. 노동자들의 생존권 투쟁 역시 어느 때보다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오랜 독재 기간 끝에 열린 해방 공간에서 사람들은 새로운 사회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다양한 고민을 쏟아냈다. ‘서울의 봄’이었다. 그러나 군사 독재를 연장하려는 세력이 남아있었다. 전두환과 노태우를 비롯한 신군부 세력이었다. 이들은 12.12쿠데타로 군부를 장악하여 정치권력을 잡을 기회를 노렸다.

1980년 5월 15일, 민주 정부 수립을 늦출 수 없다고 생각한 대학생들은 계엄을 해제하고 서둘러 헌법을 고칠 것을 요구하며 서울역 앞에서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 약 10만여 명의 인파로 추정되는 엄청난 규모의 시위였다. 그러나 이날 서울지역 학생운동 지도부는 이 정도면 학생들의 의지가 어느 정도 정부에 확실히 전달되었을 것이라는 낙관 속에서 집회를 끝낸다.

그러나 광주 학생들은 달랐다. 5월 17일 신군부 세력은 사회 혼란을 막는다며 '5·17 비상계엄 확대조치'를 발표하여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으로 계엄령을 확대한다. 신군부는 정부를 장악하고 국회를 정지시켰으며, 학생운동 지도자를 체포하였다. 소식을 듣고 5월 18일 전남대 정문 앞으로 대학생들이 모여들어 '계엄령을 철폐하라', '휴교령을 철회하라'라는 구호를 외쳤다. 대학생들을 무차별하게 사냥하는 공수부대의 행동에 분노한 시민과 대학생들이 금남로로 가자고 하나둘 입을 모아 소리쳤다. 그렇게 광주 민주화 항쟁이 시작되었다.

광주 민주화 항쟁과 80년대 대학생들

1980년 5월의 학살은 광주에서 살아남은 사람들과 광주 민주항쟁의 진실을 알게 된 사람들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다. 억울하게 죽어간 광주의 시민들과 달리 자신은 살아남았다는 죄책감이 자욱이 남았다. 특히 신군부에 맞서는 것을 중단하고 5월 15일 돌아섰던 대학생들은 광주 시민들의 참사 앞에 하염없는 부끄러움과 죄책감을 느꼈다. 그렇기에 살아남은 사람들은 광주의 소식을 알리고, 광주의 진실을 알렸다.

광주의 정신은 살아남았다. 80년대 대학생들은 모두 5.18 세대였다. 오월의 광주를 알게 된 대학생들은 광주 민주화 항쟁에 대한 부채감을 가슴에 안고 신군부가 광주를 끄찍하게 학살하려 했던 원인을 찾아 그에 맞서야 했다. 그들은 한국 사회를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치열하게 고민하고 토론했다. 그리고 광주 정신을 이어 전두환과 신군부에 맞서 싸웠다.

기억해야 하는 광주 정신

여러분! 드디어 전두환 살인 집단은 우리를 죽이기 위해 탱크를 앞세워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도청을 비워 줘야 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저들에 맞서 끝까지 싸워야 합니다. 그냥 도청을 비워주게 되면 우리가 싸워온 그동안의 투쟁은 헛수고가 되고, 수없이 죽어간 영령들과 역사 앞에 죄인이 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투쟁에 임합니다. 우리가 비록 저들의 총탄에 죽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가 영원히 사는 길입니다.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위해 끝까지 뭉쳐 싸워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불의에 대항해 끝까지 싸웠다는 자랑스러운 기록을 남깁시다. 이 새벽을 넘기면 기필코 아침이 옵니다.”

80년 5월 27일 새벽 전남도청에서 윤상원 열사가 남긴
마지막 연설 中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광주 정신’은 무엇인가. 그들은 민주주의를 외쳤다. 그것은 군부 권력이 민중의 권리를 보장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었다. 그들이 민주주의를 외친 이유는 단순히 민주주의가 옳기 때문만이 아니라, 경제적인 핍박 하에, 수탈당하고 있던 민중의 권리를 위해서였다. 그들은 독재정권의 진압을 두려워하지 않고 일어섰다. 불의에 맞서 싸우는 당당함, 눈앞에 진압을 두려워하지 않고, 미래의 더 많은 이들의 이익을 위해 일어나려는 움직임은 YH 무역 사건에서, 부마항쟁에서, 그리고 광주 민주화 항쟁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이 정신을 이어 1980년대 학생운동은 들불처럼 일어났다. 이는 1987년 6월 민중항쟁까지 이어져, 광주에서 학살을 자행한 전두환을 밀어내는 데 성공한다.

광주에서도, 그리고 그 이후에 대학생들도, 자신들이 처한 환경에서, 민중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무엇이 민중의 권리를 빼앗고 있는지를 고민하고, 또 맞서 싸웠다. 2021년 지금 한국 사회가 마주한 문제는 무엇인가? 지금, 이 순간 민중의 권리를 되찾기 위한 행동이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하는 것이, ‘광주 정신’을 잇는 진정한 방법이 아닐까.

5.18 맞이 소설 추천, <소년이 온다>와 <나의 아름다운 정원>



한강의 <소년이 온다>는 7개의 이야기를 통해 광주 항쟁 당시와 항쟁 이후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한다. 하나의 이야기로는 도저히 광주를 전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으리라. 광주 항쟁이 남긴 것은 단지 그날 산화한 열사들만이 아니라 살아남아 계속 삶과 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사람들이다. 40년이 지난 오늘 광주를 기억한다는 말의 의미를 고민하며,
앞서서 나가니 산 자여 따르라.

심윤경의 <나의 아름다운 정원>은 인왕산 자락에서 살던 가족의 이야기를 다룬다.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나서도 글을 읽지 못하던 동구는 자신의 난독증을 발견해주는 박영은 선생님을 만난다. 1970년대



말, 1980년대 초 동구는 인왕산에 살면서 학교에 가지 않고 탱크를 본다. 동구의 가족들은 자신만의 방법으로 현대사를 경험한다. 박영은 선생님 역시, 선생님이 된 자신에게 죄책감을 느끼다 광주 민주화 항쟁 속에서 산화한다. 동구는 선생님을 생각하다, 데모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변하게 된다. <나의 아름다운 정원>은 각자의 사람들이 현대사를 경험하면서 변화하는 것을 확인하며 읽어보기를 추천한다.

글 2 : 우리가 5.18 민주화 정신을 계승하는 방법

오늘날 한국 사회의 많은 사람은 5.18 민주 항쟁과 광주에 부채감을 지닌 채 살아간다. 5월이 되면 수많은 시민이 항쟁의 경험을 기억하기 위해, 민주주의의 불씨를 댕긴 열사들을 기리기 위해 광주를 찾는다. 국립 5.18 민주 묘지는 정치인들이 당선일 등 특별한 날이면 찾는 단골 장소가 되었다. 국가는 5.18을 공식적인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해 교과서에도 실고, 운동에 참여한 시민들을 열사와 유공자로 추대했다.

문재인 정권에 들어서, 민주당 세력은 자기 자신만이 5.18정신을 계승한 ‘진정한’ 민주화 세력이라고 자임했다. 국가가 민중의 운동을 공식적으로 기념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지만, 이를 필요에 따라 정치적으로 활용하며 5.18 민주화 정신을 왜곡하는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첫째, 정치인들은 민주주의에 대한 민중의 열망을 자신의 정치적 지지를 위해 활용해왔다. 민주화 이전 군부독재 시절 당시 재야세력이었던 사람들, 집권 86세대들은 자신이 ‘진짜’ 민주화 세력임을 자처하며 의회와 행정부에 대거 진입하였다. 이들은 자신만이 진정한 민주화 세력임을 자처하며 다른 정치인들을 5.18정신의 이름으로 척결해야 할 적폐로 몰아세운다. 또한, 역사적 사건을 정치적 경쟁의 화두로 삼아 지역유권자의 표심만 얻으려 하고, 정작 어떻게 해야 더 많은 시민이 민주주의에 참여하고 이들의 목소리를 국정 운영에 제대로 반영할 수 있을지 생각하지 않는다.

민주당의 5.18 특별법 개정안은 이를 여실히 보여준다. 개정안은 5.18 민주화운동에 관한 허위사실 유포 시 징역 혹은 벌금형을 내리

는 것을 골자로 한다. 역사 왜곡 역시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광주정신을 이야기하는 정치인들이 역사를 법으로 규정해 다른 해석을 처벌하는 것은 매우 문제가 있다. 반대세력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토론하여 설득을 시도하는 게 민주화 정신이다.

둘째, 국가는 5.18을 비롯한 민중항쟁을 법령을 통해 국가적으로 인정함으로써 민중항쟁의 함의를 퇴색시켜버린다. 운동을 기억하는 방식은 국가의 인정이나 역사를 박제하는 게 아니라 현재에 맞게 이를 재해석하고 운동에 담긴 가치를 실현하려는 노력이 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광주 민주화운동의 의미를 기리고 계승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운동의 주역들을 국가폭력의 피해자, 혹은 추모와 애도의 대상으로만 보는 관점에서 벗어나야 한다. 5.18과 관련된 답습된 이미지만을 반복하는 것 역시 과거의 기억에 대한 집착에 지나지 않는다. 살아남은 자들은 자신의 위치에서 지금까지 이 땅의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하는 이들에게 어떻게 연대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 항쟁의 정신은 민주주의가 끊임없이 확장될 때만 살아있다.

마지막으로, 국가는 민중운동을 제도권으로 포섭하며 운동의 시대가 막을 내렸음을 선포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국가의 제도 안으로 민주화운동이 포함되면 우리 사회는 민주화가 완성되어 최종적인 단계에 도달한 것으로 인식하게 된다. 이는 곧 오늘날까지 민주주의를 외치는 이들에게 투쟁이 필요 없고, 깃발을 내리라는 잔소리로 돌아온다.

현재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의식은 독재정권 시기와 비교하지 못할 정도로 향상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아직 한국 사회는 민주화에 대

한 인식 기반이 탄탄하지 못하고, 민주적인 토론의 장이 자리 잡지 못한 상황이다. 진정한 민주화는 모든 사회구성원이 자유롭고 평등할 때 이뤄진다. 5.18 광주 민주화 항쟁도 당시 현실의 상태를 지양하며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었다. 오늘날에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지 끊임없이 고민해보자.

1980년 이후 2021년은 어떤 모습인가? 불평등이 양극화되는 사회, 노동자들의 권리가 내팽개쳐진 사회, 누구나 평등한 교육과 의료 서비스에 접근할 수 없는 사회, 여성에게 돌봄과 재생산이 전가되는 사회 ... 아직도 사회, 일터, 학교, 병원, 가정, 그리고 우리가 삶을 영위하는 곳곳에는 아직 자유와 평등이라는 민주주의의 기치는 자리 잡지 못하였다.

5.18 광주 민주화 항쟁 또한 단순히 군부의 폭력에 저항하는 운동으로 그 함의를 축소시킬 수 없다. 항쟁의 불길이 퍼지는 데에는 군부 독재에 대한 민중들의 분노만이 있던 것이 아니라, 노동자 민중의 정치·경제·사회적 요구가 담겨있었다. 이러한 요구에 조응하여 단결한 민중의 힘이 커다란 민주화의 물결을 일으킬 수 있었다.

5.18 민중항쟁 41주년을 맞아 우리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 민주화를 고민해보자. 지금 사회의 현실을 되돌아보고 광주항쟁의 정신을 계승한다는 것의 참된 의미를 곱씹어 보자.

글 3 : 1980년 5월 광주를 정말로 2021년의 미얀마라고 부를 수 있을까?

최근 1980년 5월의 광주와 함께 언급되는 시간이 있다. 바로 '2021년의 미얀마'다. 이 두 가지 시간은 완벽하게 같다고 말할 수 없음에도 '군부에 대한 민중의 저항'이라는 점에서 서로 유사한 모습을 보인다. 실제로, 광주항쟁과 미얀마 민주항쟁의 유사점을 언급하며 연대를 표하는 글과 말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정말로 서로 다른 두 시간을 같다고 볼 수 있는 걸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당시의 광주항쟁과 현재의 미얀마 민주항쟁의 사회적 맥락을 알아야 한다.

우선 1980년 5월의 광주를 살펴보자. 광주항쟁은 그 당시 한국의 경제적 상황이 주요한 원인이다. 1960~1970년대 진행된 박정희 정부의 수출 주도의 경제정책과 미국의 지원을 통한 수출업의 성장이 맞물리면서 한국의 경제는 놀라울 만큼 빠른 속도로 성장했다. 하지만 이런 경제성장도 잠시, 1970년대 초 미국의 지원이 끊기게 되면서 발생한 경제 위기는 수출 위주로 성장해온 한국 기업들에 큰 영향을 미쳤다.

경제 위기는 가장 먼저 노동자들을 공격했다.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은 더욱 열악해졌고, 해고와 탄압이 빈번히 일어났다. 민중들은 경제 위기를 빌미로 최소한의 권리조차 빼앗는 군부에 맞섰다. 그 결과 YH 무역 사태, 부마항쟁이 발생했다. 그리고 유신 정권 직후 한국의 민주주의를 위한 대학생들의 움직임과 신군부에 대한 광주 민중들의 저항이 시작되었다. 광주항쟁은 대중적으로 알려진 것과 달리, 단지 한국의 민주화만을 위한 민중들의 투쟁이 아닌 당시 노동자들의 열악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저항이었다. 정부의 경제

정책 속 소외된 민중들의 목소리를 알리는 투쟁이었다.

그렇다면 2021년의 미얀마 민중항쟁은 어떠한가? 미국-한국, 중국-미얀마의 관계의 다른 점은 중국과 미얀마의 관계가 아주 특수하다는 것이다. 미얀마는 경제적으로 중국에 크게 종속되어있다. 중국은 미국을 견제하고 국제적 영향력을 넓히기 위해 미얀마를 활용했다. 경제성장을 필요로 하는 미얀마에게 인프라 투자를 명목으로 막대한 양의 빚을 지게 하고 주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거래를 해왔다. 이는 일대일로 정책¹⁾의 일부다. 그 결과 양국의 전력망이 연결되었을 뿐 아니라 새로운 수로, 산업단지 등에 중국이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현재의 미얀마 경제구조는 미얀마 군부의 경제성장이라는 목표와 국제적 영향력을 넓히려는 중국의 시도가 맞물리면서 탄생한 것이다.

또한, 2021년 미얀마의 투쟁은 구금된 아웅 산 수 치를 해방하라는 구호부터, 미얀마에 존재하는 수많은 소수민족의 문제를 해결하라는 구호, 소수민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방제 민주주의를 외치는 목소리, 아웅산 수치 한 명에게 집중된 정치가 아닌 대안적인 정치를 바라는 구호 등 다양한 목소리가 존재한다. 따라서 미얀마 투쟁을 단순히 ‘군부에 맞선 민중의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으로 보기에

1) 일대일로란 하나는 육지기반의 실크로드 경제벨트 계획이고 다른 하나는 해상기반의 21세기 해상 실크로드 계획이다. 미국은 아시아로의 회귀를 선언한 이래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는데, 이는 중국 입장에서 자국의 성장을 견제하고 압박한다는 의미이다. 일대일로는 미국의 압박에 대한 대응 수단으로서,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의 중국에 대한 미국의 포위망을 뚫기 위한 계획이다.

출처 : 사회진보연대 계간지, 2019 겨울호 <동아시아, 세계의 화약고가 될 것인가>

는 투쟁이 갖는 맥락과 의미가 너무나 다양하다.

광주항쟁과 미얀마 투쟁의 사회적 맥락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문제의 원인을 알아야 적절한 대안을 고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단순히 군부가 폭력적이라서가 아니라 경제 위기, 국제관계가 얽혀 있는 문제임을 알아야만 민주주의를 넓고 깊게 이해할 수 있다. 그래야 한국의 민주주의도, 미얀마의 민주주의도 ‘군부독재 반대’ 이상의 대안을 만들어낼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광주항쟁과 미얀마 투쟁의 차이점을 고려하지 못한 채 1980년 5월 광주와 2021년 미얀마를 동일시하는 연대에 대해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구체적인 맥락과 차이를 고려하지 않는 것은 지금 싸우고 있는 미얀마 민중들의 투쟁을 단순화할 위험이 있다.2) ‘같이서’ 연대하는 것이 아니라 미얀마가 처한 구체적인 상황이 민중의 권리를 어떻게 침해하는지를 이해하고 함께 막아내는 연대가 필요하다. 우리는 동일시를 넘어선 각자의 맥락으로 군부독재 반대 이상의 구호를 시작해야 한다. 우리는 서로 다른 두 시간을 잘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것이 진정으로 ‘광주정신’을 실현하는 길이다.

2) 그런데 이러한 동일시는 이번에만 나타난 것은 아니다. 미얀마의 투쟁 이전에도 2019년 홍콩의 민주화 운동 당시 ‘5월 광주는 홍콩과 연대합니다.’, ‘홍콩은 5월 광주다.’ 등의 연대 구호를 인터넷과 거리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5월 광주와 2019년의 홍콩을 동일 선상에 놓는 이러한 구호 역시 이러한 점에서 비판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전국학생행진
인스타 @stu_link
홈페이지 stulink.me